즉시 배포용: 9/17/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경제 정의를 위한 MARIO CUOMO 캠페인에 30개 민권 단체 및 유명 리더들이 참여함을 발표

전주 최저 임금을 $15로 인상하기 위한 운동에서 주지사를 지지하는 캠페인의 성장

발표는 Cuomo 지사가 제5회 연례 암스테르담 뉴스 노동절 조찬에서 노동 챔피언 상 수상시에 나옴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30개 주요 민권 단체 및 유명 커뮤니티 리더들이 뉴욕주의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15 최저 임금 지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주 이니셔티브인 경제 정의를 위한 Mario Cuomo 캠페인에 합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제5회 연례 암스테르담 뉴스 노동절 조찬에서 Cuomo 지사가 노동 챔피언 상을 받을 때에 나왔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단순히 경제학 문제가 아니라 민권 문제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현재의 최저 임금은 수 백만 근로 뉴욕주민들을 빈곤 속에 가두었으며 탈출구를 찾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 악순환으로 그들은 영구적 불우에 처해졌는데 지금이 변화의 시기입니다."

Mario Cuomo는 뉴욕주지사로 화동한 3년의 재임기간 이전, 당시 및 이후에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써왔던 분입니다. 그는 주지사 시절에 최저임금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인상하여 총 28%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임금 노동 착취행위를 뉴욕주에서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Garment Workers Strike Force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보건 비용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주/조합 합자 공동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근로자들은 보건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Mario Cuomo Economic Justice Campaign은 2016년 뉴욕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시간당 15달러를 목표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싸우는 이러한 유산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15달러 최저임금을 위한 다음 입법심의회에서 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의를 위한 Mario Cuomo 캠페인에 오늘 가담한 단체 및 유명 리더들:

단체

- AARP New York
- Anti-Defamation League
-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 Asian Americans for Equality
-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 Children's Defense Fund New York
- Demos
- Empire State Pride Agenda
- Hispanic Federation
- Housing Works
- Labor Council for Latin American Advancement (LCLAA)
- Latino Justice PRLDEF
-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LULAC)
- NAACP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Inc.
- NAACP New York State Conference
-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 National Latina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 National Women's Law Center
-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 New York Lawyers for the Public Interest
- New York Urban League
- Southern Poverty Law Center
- United Way of New York City
- YWCA of the City of New York

리더

- David N. Dinkins, 뉴욕시 제106대 시장
- Dolores Huerta, 유명 노동 리더 및 민권 활동가
- Ben Jealous, NAACP의 전 사장 겸 CEO
- Bertha Lewis, 유명 활동가, Black Institute의 창립자 겸 원장

뉴욕시 제106대 시장이었던 David N. Dink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를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최초의 주로 만들기 위한 그의 행동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주지사께서 주 의회에 수 백만의 근로 뉴욕주민들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전진시키도록 촉구하는 데 저의 지지를 보태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슈는 기본적 경제 공정성 및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이며 뉴욕주가 전국을 계속 리드해야 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상원과 하원이 $15 최저 임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권 리더이자 전 NAACP의 총재 겸 CEO였던 Ben Jealou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의 공정한 인상은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니즈도 뒷받침할 수 없는 임금으로 인해 가난에 더 깊이 내몰렸습니다. 최저 임금을 $15로 인상하면 최저 임금에 의존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수 천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Cuomo 지사의 대담한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NAACP의 뉴욕주 지부장 Hazel N. Duk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AACP 뉴욕주 지부는 Cuomo 지사의 최저 임금 인상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조치가 올바른 할 일일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할 일임을 압니다."

LatinoJustice PRLDEF의 총재 겸 법률고문인 Juan Cartagen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atinoJustice PRLDEF는 뉴욕주에서 그 중 다수가 라티노 근로자들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이 최저 임금 인상 노력을 지지합니다. 이 노력은 종업원, 그 가족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민간 부문이 워킹 푸어의 힘든 조건을 완화하지 못한 곳을 당연히 강조합니다."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총재 Donna Lieber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중요하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전진으로서 수 천 명의 근로 뉴욕주민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인상해야 합니다."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총재 Margaret F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가족들이 최저 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데 임차료 같은 기본 필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려는 Cuomo 지사의 노력은 뉴욕주의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묶여 있는 이민 근로자들을 위해 중요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노동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한 생계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유명 활동가이자 Black Institute의 원장 겸 창립자인 Bertha Lew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현재의 최저 임금에 의해 억압 받는 근로 가족들의 고향입니다. 주지사는 최저 임금을 $15로 인상하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뉴욕주의 빈곤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노력에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경제 정의를 위한 투쟁의 전환점이고 뉴욕주 리더십의 진정한 증표입니다."

유명 노동 리더이자 민권 활동가인 Dolores Huert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면 최저 임금에 의존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수 백만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근면 뉴욕주민들은 최소한의 니즈도 뒷받침할 수 없는 임금으로 인해 가난에 더 깊이 내몰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용인될 수 없으며 뉴욕주는 근로자들을 위해 더 나은 경제 환경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도해야 합니다. 저는 임금을 인상하려는 Cuomo 지사의 대담한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그의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의 총재 Christine Ow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딜과 빈곤 전쟁처럼 $15 최저 임금 채택에서 뉴욕주가 리드하자는 Cuomo 지사의 촉구는 우리 부유 국가가 번영의 공유라는 이상을 실현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회는 가장 힘 없는 구성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의해 판단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고 Mario Cuomo 지사에게 어울리는 명칭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가 충분한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경제적 도덕적 난제입니다. $15 최저 임금은 급여를 아메리칸 드림이 멀어져버린 최대 300만 뉴욕주민들(주 인력의 37%)의 생계비와 맞출 것입니다."

Children's Defense Fund-New York의 총재 Melanie Hartzog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빈곤은 아동과 우리 주의 미래를 해칩니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자는 Cuomo 지사의 제안은 수 천명의 아동들을 빈곤에서 구출하고 적자를 면하기 위해 고생하는 근로 가족들에게 경제적 안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National Women's Law Center의 가족 경제 안보 담당 부총재 Joan Entmach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저임금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과 그들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이 최저 임금 인상은 빈곤 수준 임금의 종말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진짜 처방을 의미할 것입니다."

Demos 총재 Heather McGhe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풀타임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이상 가족 부양은 커녕 기초적 필수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15 최저 임금을 촉구하는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쉴새 없이 수고해온 커뮤니티 및 노동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이 제안은 빚지지 않으려고 고투해온 많은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것이며 우리를 더욱 공평한 뉴욕주에 한 큰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United Way of New York City의 총재 겸 CEO인 Sheena Wrigh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nited Way of New York City는 Cuomo 지사의 시간당 $15 최저 임금 캠페인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4년 자족 표준은 뉴욕시의 5가구 중 2가구가 기초 니즈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중 83%는 적어도 1명의 근로 성인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UWNYC는 더 많은 뉴욕시민들을 자족 수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 하한을 오늘날의 생계비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하는 이 중요한 조치를 강력 지지합니다."

New York Urban League, Inc.의 총재 겸 CEO인Arva Ric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 백만 근로 뉴욕주민들에게 당연한 존중과 경제 평등을 제공하는 데는 더 높은 최저 임금이 필수적입니다. 이 절실히 필요한 인상을 위해 싸우는 Cuomo 지사가 옳으며 저는 Mario Cuomo 경제 정의 캠페인이 이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15 최저 임금은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출하여 그들이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 임금을 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총재 Steven Cho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근로자들을 위해 일어서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수가 이민자들인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생활 임금에 접근하게 하는 이 중요한 첫 걸음으로 혜택을 입기 원합니다. 뉴욕주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추적 움직임은 모든 주에게 생활 임금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가 높은 우선순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뉴욕주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National Latina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의 총재 Jessica González-Roja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라티노와 그 가족의 건강, 위엄 및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의 리더로서 우리는 더 높은 임금에 의해 근로자들이 식품, 임차료, 의료 및 기타 니즈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압니다. 더 많은 돈을 근로자들 주머니에 넣음으로써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종종 저임금 때문에 가족을 위한 돈을 저축하기 위해 자신의 의료를 그만 두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볼 진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여성 및 가족들과 함께 경제 정의를 위한 Mario Cuomo 캠페인을 지지하며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로 올려달라고 2년 동안 요구해온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공무원들이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Center for Popular Democracy의 공동 총재 Andrew Fried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현재의 최저 임금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로 가족을 미래의 빈곤으로 내몹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너무 오랫 동안 박탈 당해온 경제 정의를 향한 극적인 운동을 뉴욕주는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운동을 찬양하며 그것이 뉴욕주의 수 천 근로 가족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대합니다."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의 총재 Miriam Ye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은 주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려는 Cuomo 지사와 기타 주 리더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주요 인종 그룹보다 더 높은 요율로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는 빈곤 속에서 고생하는 50,000여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출신(AAPI) 여성의 집인데 AAPI 여성 3명 중 1명은 $15 최저 임금 미만을 법니다. 그 결과로 여성, 어린이와 가족들이 고생합니다. 뉴욕주의 최저 임금을 올릴 때입니다."

Empire State Pride Agenda의 총재 Nathan Schaef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정 임금을 위한 용솟음치는 운동에 합류하여 뉴욕주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기 위한 지지를 다짐하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날의 극히 낮은 최저 임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의 근로자들을 빈곤에 묶어두는 닻과 같습니다. 그러한 근로자들 중 다수가 LGBT이기 때문에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의 결과로 이미 직장 차별과 기타 생계비를 버는 그들의 능력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Asian Americans for Equality의 총재 Chris Ku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주민들이 그럭저럭 살아나가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 그것은 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투쟁하도록 돕고 누구나 평등한 성공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지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저는 경제 정의를 위한 이 중추적 투쟁에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Housing Works의 총재 겸 CEO인 Charles K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모든 뉴욕주민, 특히 HIV를 안고 사는 저소득자 또는 청소년, 가난한 사람과 홈리스 또는 주거 불안정자를 포함한 최대 감염 위험자 같은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과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우리가 주지사 밑에서 성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도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께 더 튼튼한 뉴욕주를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 중 가장 변방에 밀려난 뉴욕주민들을 위해 진정한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주AARP의 주 총재 Beth Fink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생활 임금을 확립하여 뉴욕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살고 나이가 들면 은퇴하도록 돕기 위한 Cuomo 지사의 목표를 AARP New York은 지지합니다."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LULAC)의 전국 총재 Brent A. Wilk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게 버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충분히 추구할 수 없지만 Cuomo 지사의 최저 임금 $15 인상 추진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뉴욕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 임금의 공정한 증대가 우리 커뮤니티 번영을 도울 수 있음을 인식한 주지사를 가져서 행운입니다. 저는 뉴욕주가 그 길을 선도하는 것을 보니 자랑스러우며 그것이 우리나라 나머지 주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Labor Council for Latin American Advancement의 총재 Hector Sanch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라티노 공동체는 근면의 가치를 잘 압니다만 안타깝게도 최저 임금으로 지탱하기 위해 고생하는 근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티노 근로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는 그들의 노고를 반영하고 존중하는 임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저는 뉴욕주가 성취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곤란한 근로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